

전남교육청, 정보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동시 실현

전남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의 4개 분야 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무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55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기존 180개에서 250개로 확대하고, 원문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공개문서를 공개로 재분류하는 등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업무를 추진했다. 이 결과 이번 평가에서 사전정보공개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등 4개 평가지표 모두에서 높

은 점수를 얻어 상위 20%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직원 모두가 솔선수범을 기반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용정중학교, 남도순례 100km 대장정 성료

걸어서 해남~강진~장흥 거쳐 학교까지 완주



보성용정중학교(교장 황경하) 학생들이 남도순례 100km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용정중학교 3학년 40명과 인솔교사 5명은 8월 27일부터 3박 4일 동안 해남 땅끝 마을을 출발해 용정중학교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두발로 완주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용정중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체험학습으로 1학기는 전교생이 3박 4일 동안 지리산 종주, 2학기는 산사체험(1학년), 역사탐방(2학년), 남도순례(3학년) 등 학년별 특색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3박 4일간의 남도순례는 두 발로 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내심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도순례는 단순히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3개의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하며, 마을 어르신 위문진지, 환경 정화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길렀다.

학교 관계자는 "매년 3박 4일 남도순례를 하는 아이들의 물질 잡힌 발과 한계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다."며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비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대,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순천대학교는 6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올해 전체 선발인원 1,760명 중 이번 수시모집에서

1,478명(84%)을 선발하며,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 694명, 학생부교과전형 713명, 실기전형 7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로부터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받지 않는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수험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 중 성적 우수자전형은 일부 학과(간호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능 부담 또한 대폭 줄었다는 평이다.

무안교육지원청,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위한 원탁토론



무안교육지원청은 2일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급별로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원탁에서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점과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팀별로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업무지원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무안북중 교사는

"막연하게 학부모 업무를 추진했었고, 예산 또한 행사위주로 사용했었는데, 학부모를 교육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교육과정에서 학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 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활성화 되어 행복한 무안교육실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광주교육청, 日 무역규제 수업자료 '공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일본 무역규제 수업자료'가 완성돼 지난 3일 공개됐다.

제작에는 지역 역사교사모임 회원들이 참여했다. 광주역사교사모임 백종원, 최진호, 박용준 교사와 광주초등교원역사동아리 나경관 교사, 광주전남역사맛캐스트팀 김경훈 교사 등이 개발위원으로 참여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원해 현장 교사 전문성과 교육청 공신력을 동시에 담았다.

4일 현재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 중인 해당 자료엔 일제강점

기 한국인 강제동원과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의도와 정부·교육청·학교 차원 대응,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반박, 전문용어 해설이 담겨 있다.

현장 교사들이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안'과 'PPT' 파일도 첨부했다. 총 42쪽 분량이며 한일 갈등과 근현대사 수업에서 '미니 교과서' 역할도 가능한 구성이다.

일제강점기 실제로 강제 동원됐던 우리 선배들의 증언과 사진, 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서 논란

이 되는 조항, 강제징용 피해소송 과정과 배상 판결, 대 한국 수출규제 과정, 각 시도 교육청의 친일잔재 청산 현황, 참고할만한 영상, 도서, 영화 등 교육현장에 공식 보급된 교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수업자료는 광주시교육청 누리집 자료마당-부서별 공개자료실-민주시민교육과 분류에 게시돼 있다.

해당 자료실에선 근로정신대 역사교육 교재,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 자료, 학생독립운동기념 계기교육 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관련 영상교육 자료도 만나 볼 수 있다.

전남과학교육원 '이동과학교실', 최신형 4D체험 차량 투입



전남과학교육원의 '이동과학교실'이 최신형 4D체험 차량으로 교체돼 새롭게 출발했다.

전남과학교육원은 3일 나진초등학교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하반기 '꿈을 키우는 이동과학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이동과학교실부터는 새로 바

뀐 '최신형 4D 체험차량'이 투입됐다.

총 3억 5,800만원을 들여 제작한 새 이동과학차량은 대형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4D 시뮬레이터를 장착하고 학생들이 최신 과학 영상으로 4D 효과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구축됐다.

특히, 다양한 4D효과(에어젯, 다리떨림, 진동, 선팅, 바람 등)를 적용해 영상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역동적인 4D 시뮬레이터 움직임과 다섯 가지 특수효과를 가

미해 학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남과학교육원은 '꿈을 키우는 이동과학교실' 프로그램도 새 차량 시설에 걸맞게 편성했다.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으로는 이동과학버스 안에서 4D 입체영상 체험이 진행되고,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 대상으로는 플라스틱의 특징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학습하고 3D폴리모프를 이용해 모형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오조코드를 이용해 명령내리기부터 오조블록클리로 직접 코딩해 제시된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과 드론의 원리를 학습하고 드론을 이용한 축구 게임도 체험하게 된다.

